



책 속의 밑줄 긋기

독서를 할 적에도 이마에서 빛을 놓아 등불을 밝힐 필요가 없었으며, 야간에는 실내에 등이 없어도 저절로 밝아 마치 대낮과 같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자주 있었다. 관경(觀經)에서 이르길 “대세지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 무변광(無邊光)이시니 지혜의 광명으로 일체를 두루 비추신다”라고 하였다. 상인은 대세지보살의 응신(應身)인 까닭에 늘 광명을 나투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선택본원염불집〉 중에서

# Books

## 허응당 보우 소설화...“욕망 없으면 고통도 없다”

붓다, 유혹하다

강준 지음 | 1만 2천원 | 문학의식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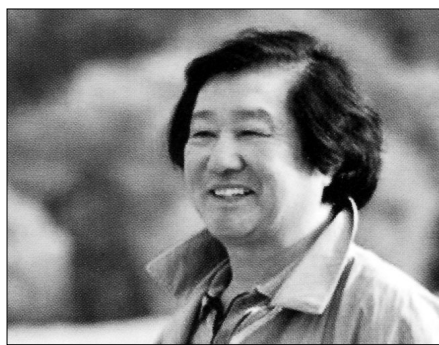


이 책은 조선 불교 중흥조인 허응당 보우 대사를 소재로 한 소설이다. 보우대사는 '지금 내가 없으면 앞으로 불법(佛法)은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는 소명의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개척한 선지식이다. 이 작품은 나(도훈)라는 인물이 보우의 행적을 좇으며 불교와 보우대사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을 그렸다. 아마도 도훈은 저자인 듯 하다. 몇 년 전 문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보우대사의 이야기를 접한 저자는 그 궤적을 좇아 서울 경기 강원 일대의 사찰을 기행했고, 관련 서적도 여럿 접했다. 그런 호기심과 노력이 주인공에 감정이입된 것 같다.

요소는 훨씬 허응당 보우 대사가 많다. 드라마틱한 격정의 세월을 살아서다. 아마도 그래서 저자가 허응당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택했는지 모르겠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자료를 찾아다니 보우대사의 격정 세월을 한 편의 희곡으로 담기에는 내용이 방대했다. 30여년간 희곡관을 써온 나로서는 부담스러운 작업이었다. 우선은 불교에 문외한인 것이 걸렸지만 희곡과 소설은 양식은 다르지만 서사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오히려 압축미를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도전을 감행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보우 대사는 조선 명종 때 조선 불교계 수장으로서, 송유억불이 국시였던 조선 사회 율림의 끊임없는 방해와 위협에 당당히 맞서면서 불교 중흥을 위해 순교한 인물이다. 그는 1548년(명종 3년) 39세 때 명종 모친인 문정왕후로부터 조선 불교 총본산인 봉은사 주지로 임명 받는다. 문정왕후는 그의 아들이 부처님 덕에 임금이 됐다고 생각하고 흥불을 위해 인재를 찾던 중 보우대사를 만난다. 이후, 유신들의 끊임없는 반대와 상소 속에서도 천인이 된 승려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도첩제를 시행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승려에게만 승적을 주었고, 승과 제라는 과거 시험을 통해 전국 사찰을 관리할 주지들을 뽑아 나라에서 벼슬을 내리고 봉급을 받게 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승과



희곡작가의 첫 소설 시도

자료 조사 위해 사찰기행 다녀

시대정신과 소명의식 제시

제 출신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서산대사 휴정과 사명당 유정이다. 보우 대사는 17년 동안 불교 중흥을 위해 동양 최대 사찰인 회암사 중건 등 많은 공적을 남겼다. 하지만 1565년(명종 20년) 문정 왕후가 승하하자 유림들의 표적이 되어 제주에 유배된다. 그리고 제주 목사에 의해 결국 장살을 당하고 일생을 마친다. 소설도 비교적 실제적 삶에 충실했다.

이 작품을 통해 저자는 지성인의 시대정신과 소명 의식에 대해 생각하고자 했다. 시대를 떠나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 지성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보

우 대사는 그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누군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은 거대한 다수의 횡포에 의해 왜곡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보우 대사의 말처럼 욕망이 없다면 고통도 얻을 것도 없다. 이 작품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현대인들에게 화두를 던진다.

“허깨비로 와서 허깨비 마을에 들어왔네/ 오십여 년 세월 화통하는 미치광이가 되어/ 인간세상 영화롭고 욕된 일 화통삼아 다 하고/중이라는 허수아비 달 벗고 푸른하늘 오르네”

소설속에서 마지막 열반에 드는 보우대사가 태고 스님과 함께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인데 꼭 오도송처럼 들린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저자 강준은?

희곡작가 강용준(姜龍準)의 필명이다. 원로 소설가 강용준(姜龍俊) 씨와 한글 동명이기 때문 후배로서 소설 작품의 필명은 강준으로 했다. 경희대 국문과와 동 교육대학원서 희곡을 전공하고, 극단이어도름 창단 20년간 대표를 역임했다. 1987년 <월간문학>을 통해 등단했고 <더 북서> 등 5권의 희곡집을 냈다. 삼성문학상(도의문화재단작), 한국희곡문학상, 제주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제주문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내용을 <항복기심>으로 출간한 바있다.

만행스님은 “선방에 앉아있는 것만이 참선이 아니고, 일을 통해 참선을 해야 진정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말은 일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마음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방에서만 각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건 항상 각조를 유지해야 진정한 참선공부라고 강조한다. 각조를 유지하며 모든 일에 적용하니 항복시켜 선용하는 것이고, 밤에 참선을 하며 그 마음들을 항복시켜서 낮에 잘 쓰니, 그 또한 항복시켜서 선용하는 것이라고 책에서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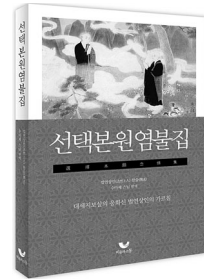
이 <선용기심>은 위래 74장으로 돼 있다. 2011년 중국어 판으로 처음 나왔을 때에는 법문 순서대로 기록한 것인데, 이번엔 한국 독자들을 위해 다섯 주제로 분야별로 묶었다.

김주일 기자

## 염불 수행의 공덕과 중요성 소개 ... 진종(眞宗) 핵심요지 담아

선택본원염불집

법연상인 친술 | 수마제 스님 번역  
비움과 스통 펴냄 | 1만 2천원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민의 심성을 순화하고 도(道)와 덕(德)이 높은 참사람을 길러내야 할 종교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이른바 ‘종교의 위기’ 시대에 불교 역시, 오락악세(汚濁惡世)의 먹구름을 피해가지 못하는 것인가. 불교 종단 역시 수행기풍의 문란과 승단내부의 갈등, 일부 사이버 승려의 비리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그렇다면, 위기의 한국불교는 어떻게 해야 다시 찬란한 법등(法燈)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그 대안의 하나는 염불이라고 역자(譯者)는 확신한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세가 강했던 대안이 불자가 80%에 달하는 불교국가가 된 데에는 신심 깊은 염불행자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문화대혁명 과정에 철저히 파괴된 중국불교가 거대한 용틀임을 하고 있는 것도 염불수행의 힘이 기반이 되고 있다. 침체된 한국불교가 다시 살아나 통일한국을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깊이 믿는 신심(信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도의 근원이자 공덕의 어머니인 믿음은 갖추기 위해서는 염불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수행이 아닐 수 없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힘이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의 가르침에 따라 마을마다 고을마다, 남녀노소 부귀 빈천을 떠나 염불한 백성의 발원(發願)에서 기인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염불이 얼마나 위대한 수행법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의 발간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이 책은 대세지보살의 응化身(應化身)으로 불리는 법연상인(法然上人: 1133~1212)이 일본에 청명염불을 위주로 하는 정토종을 창종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원효-의상대사의 염불수행이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있는 것이다.

법연상인 이전의 일본불교는 비록 대승의 각 종파가 있었으나 유일하게 정토종만 없었다. 따라서 정토문(淨土門)의 교단이 없을 뿐더러 정토문에서 정식으로 의지하는 소의경전과 교상(敎相)상의 이론체계 구축되지 않았으므로, 왕생의 행체(行體)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었다. 비록 당시에도 서방정토 왕생을 발원한 행자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모두 각 종파의 교리에 의탁하여 잡행잡수(雜行雜修)를 하면서 회향을 하였으니, 이른바 ‘종속적인 종파(宗宗)’라 불리게 되었고, 게다가 각 종파의 교리로서 아미타의 정토를 판별하였으므로 정토의 의보(依報)와 정보(正報) 및 왕생의 정인(正因)은 각 종파의 종의(宗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법연상인은 이 점을 고려해 기존 종파 외에 따로 정토종을 창종하고 이 <선택본원염불집>을 저술해 개종입교(開宗立敎)의 근본교전으로 삼았으니, 이때에 이르러서야 아미타불의 본원의 의취(意趣)와 왕생의 행체(行體)가 남김없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선도대사의 종지를 따르고 있는 이 책에는 진종(眞宗)의 핵심 요지와 염불의 깊은 뜻이 다 들어있어 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염불행자들은 물론 일반 불자들에게도 더없이 깊은 보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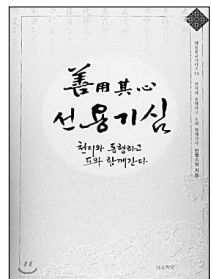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 책 속의 한 구절

상인은 여러 종파의 교리를 다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수행 역시 영험이 많았다. 삼찰일을 기한으로 정하고 법화삼매(法華三昧)를 닦았는데, 이에 감응하여 보현보살이 흰 꼬끼리를 타고 오시어 증명해주신 적이 있었고, 또한 산왕(山王) 다이곤겐(大權現)이 모습을 드러내 호위를 하기도 했다. 또한 밤에 독경을 할 적에 불을 켜지 않아도 실내가 환하게 밝아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어 방안에 들어가 보니 등불이 전혀 없었는데, 다시 바깥에서 보니 광명이 환하게 비추었으므로 매우 불가사의함을 느끼면서 수희(隨喜)의 눈물을 흘렸다.

선용기심

만행 스님 지음 | 대우학당 펴냄 | 3만원



이 책은 <항복기심>이후의 법문과 수행기록이다. 성불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육체수련의 방법을 독도한 사람의 입장에서 자세하고도 심도있게 법문했다. 특히 불경과 수련 그리고 보살행에 대한 마음자세와 수련하는 방법 등은 성불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의 심신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선용기심>의 ‘선용(善用)’은 공부해서 깨달은 마음을 잘 쓴다는 것이다. 이는 선문답이다. 화두를 잡고 참선을 할 때 각조(覺照)를 잡아야 하는데, 각조는 각찰(覺察)하고 조고(照顧)한다는 뜻이다. 즉 잘 살펴서 얻은 깨달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돌봐준다는 것이니, 화두를 잘 보살피고 돌보다 보면 깨닫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것을 항복시키고 장악해서 어떤 상황을 맞더라도 정지정견(正知正見)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을 선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참선해서 얻고자 하는

것, 성불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선용하는 것이다. 마음을 선용하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인 것이다. 그러니 <항복기심>과 <선용기심>은 각각 선과 후가 되고 안과 바깥이 되어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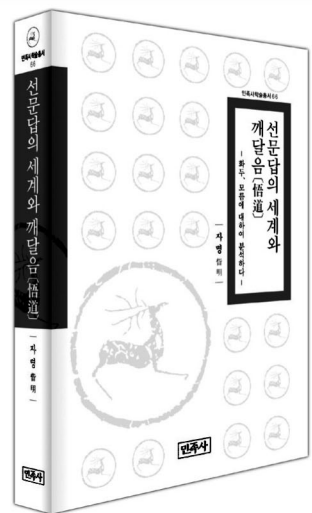
저자 만행(萬行)스님은 중국 남보타사서 출가했다. 이후 22세에 중국 민남불교대를 졸업하고 7년에 걸친 3번의 폐관을 했다. 폐관을 마친 후 1998년 중국 광둥성 동화선사 주지로 취임하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동화선사를 증축했다. 주간에는 신도들과 함께 동화선사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신도들에게 설법을 했는데 그

## “공부해서 깨달은 마음을 잘 써라”

### 좌선하다가 깨달았다는 선승은 없다. 선문답을 통하여 깨달았다!!

—일상적인 언어로 간화선의 핵심 주제들을 분석하다.

고봉 원묘와 몽산 덕이는 정통 간화선이 아니다. 지금의 한국 선은 고봉선, 몽산선이다.



##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悟道)

-화두, 모름(不會)에 대하여 분석하다-

■ 자명출판 지음 | 464쪽 | 25,000원 | 신국판 양장

자명 스님: 1958년 대구 출생. 1977년 경북고 졸업, 서울대학교 입학. 1979년 해인사로 출가. 1980-1988년 백송사, 봉암사, 공림사, 정전암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 2011년 동국대학교에서 「선문답을 통한 수행법연구」로 박사학위 받음.



## 이평래 교수의 대승기신론 강설

여래장사상을 연구한 이평래 교수가 평생을 바친 역작!

여래장사상의 완결서!!

1.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의역
2. 친절한 용어 해설로 내용 이해
3. 도표를 통해 대승기신론의 세계를 알기 쉽게
4. 인간의 내면세계를 긍정적으로 서술

■ 이평래 강설 | 624쪽 | 29,500원 | 신국판 양장

## 사마에서 부르는 불이(不二)의 노래

불교의 핵심 · 진수가 담겨 단 한 권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유마경의 세계를 드라마틱하게 펼쳐 놓았다.

■ 황금 강의 | 604쪽 | 29,500원 | 신국판 양장

## 유마경과 이상향



## 선의의 어록

중요한 선어록과 선 경전(禪經典)의 친절하게 해설서!!

禪의 주요 경전인 수행도지경, 좌선삼매경, 유마경 등 16종과 중국 선어록의 핵심 입제록, 마조어록, 벽암록 등 30종과 한국의 선어록 26종을 망라하여 완벽 해설!

■ 김호규 지음 | 336쪽 | 18,000원 | 신국판 양장